

11월 1일 이후의 현의 요청 내용 등

- ▽ 전국적으로 '제5파'는 거의 종식되었고 본현의 감염상황·병상사용률 등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이
→ 이달 말까지의 '리바운드 방지 철저기간'을 종료하고 현민 등에 대한 요청을 일부 완화
- ▽ 계속해서 **감염대책의 철저화를 당부**하는 동시에 감염확대의 전조가 보였을 경우에는 주저 없이 강한 조치로 이행

지역	대상	11월 1일 이후						
현내 전역	현민	<u>외출·이동시의 감염방지 대책 철저화</u> <u>회식 및 식사 동반 행사에서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철저화</u>						
	음식점	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감염 방지책 철저화						
	그 외의 시설	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감염 방지책 철저화						
	이벤트	이하의 인원수 제한·수용률이 적은 편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인원수 상한</th> <th colspan="2">수용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,000명 또는 수용정원의 50% 이내 중 큰 편</td> <td>큰 목소리 없음 100%</td> <td>큰 목소리 냄 5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인원수 상한	수용률		5,000명 또는 수용정원의 50% 이내 중 큰 편	큰 목소리 없음 100%	큰 목소리 냄 50%
	인원수 상한	수용률						
5,000명 또는 수용정원의 50% 이내 중 큰 편	큰 목소리 없음 100%	큰 목소리 냄 50%						
사업자 대학 등	종업원·학생 등에게 <u>음식을 수반하는 행사 등을 실시할 때의 감염방지 대책 철저화 등을</u> 요구할 것							

현민께 요청내용 【현내 전역】

11월 1일 이후

【법 24조 제9항 등】

- 혼잡한 장소로의 외출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외출이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·손위생 등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, 삼밀이나 5가지 장면※ 등을 피할 것
- 회식 및 식사를 수반하는 행사에서는 대화 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
- 감염대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엄격히 자제할 것(택배·테이크아웃 제외)【계속】
- 음식점이 요구하는 감염방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【계속】
- 노상·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 **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자제**할 것 【계속】
- **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**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【계속】
-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의료기관에 상담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 【계속】

※ 감염 위험이 높은 ①음주를 동반한 친목모임 등 ②다수인원 및 장시간에 걸친 음주와 식사 ③마스크를 쓰지 않는 대화 ④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⑤거처 이동